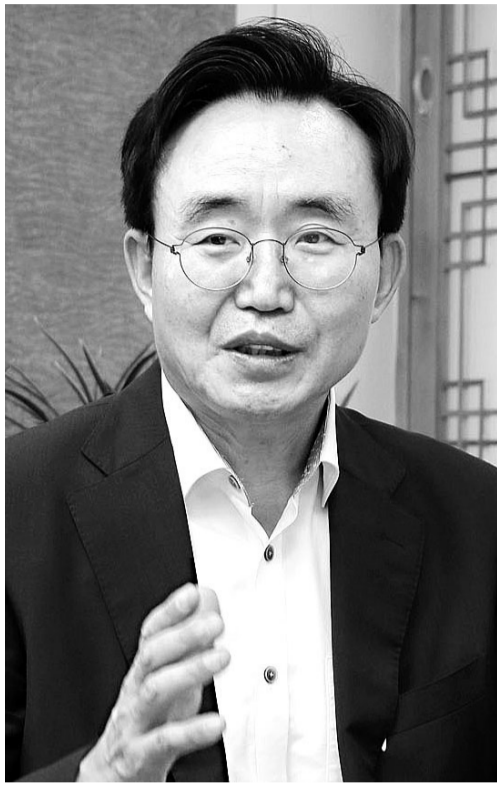


2025 새해 이렇게 **윤병태 나주시장**

“500만 관광시대 열고 농축산 생명산업 무한 가치 창출”



‘푸드테크 지원센터’ 올해 착공...나주배 유통 확대·한우 브랜드 개발
인공 태양 연구시설 유치 총력...청년 0원 임대주택 등 복지도 ‘쫄쫄’

“500만 나주관광시대, 인구 20만 글로벌 강소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8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2025년 시정 주요 전략으로 ‘농축산 생명산업 무한한 가치 창출’, ‘에너지산업 중심지 도약’, ‘500만 나주관광시대 개막’, ‘삶의 질이 최고인 빛가람 혁신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 교육도시’, ‘모든 세대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2025년은 지방자치제 도입 30주년이자 나주시와 나주군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나주시가 탄생한 지 30년을 맞는 해라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그는 올해 착공하는 전남 유일의 ‘푸드테크 지

원센터’를 통해 지역의 농축산 생명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고, 신품종 천년이음 나주배 재배·유통 확대, 명품 한우 브랜드 개발로 지역 축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린다는 구상을 밝혔다.
나주를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나주 에너지 글로벌 포럼’은 더욱 내실을 다지고, ‘인공 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미래 청정 무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인공 태양 연구시설은 이미 한국에너지공대와 협력해 핵심 기술 중 하나인 498억원 규모의 ‘초전도 도체 연구시설’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영산강 정원에서 개최한 ‘2024 영산강 축제’는 500만 나주 관광시대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영산강정원을 더욱 내실 있게 채워가고 영산강 일대를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킬 ‘영산강 삼백리 자연거점’, ‘남평 간이역 테마공원’, ‘동강면 한반도 지형 전망대’, ‘남평 식산 돌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발전의 원동력인 빛가람혁신도시는 ‘삶의 질 최고 도시’, ‘에너지 중심의 미래도시’ 완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도시 기반 개선을 추진한다.
보편적인 교육복지 제공을 통해 명품교육 도시로의 도약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는 선순환 구조 완성을 위해 ‘나주애(애)배움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대도시와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나주 미래교육지원센터 기능은 더욱 강화한다.
지역 인재들이 우수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폴리텍대학 전라남도 교육원’과 기존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 등과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여 줄 자격증 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나주 실현을 위한 복지 분야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한다.

청소년과 어린이의 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낮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0원 임대주택’도 추가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확대 운영,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0세까지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에 보탬을 주는 ‘어르신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윤 시장은 긴급 민생경제대책과 관련에 대해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정국이지만 오직 민생안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민생 현장에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대책을 지속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은 더 큰 나주,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중심에 두면서 열린 소통과 투명한 행정을 통해 더 나은 내일, 더 큰 도전을 향해 한자씩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특별교부세 150억 확보

지능형 CCTV 설치·노후 하수도 정비 등 지역 현안 해결 속도

장성군이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성군은 민선8기 동안 특별교부세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확보한 40억원은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진입로 정비공사(5억)’,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소나무 가로 숲길 조성(5억)’, ‘평립담장미공원 활성화사업(3억)’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쓰였다.
여기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사업(4억)’, ‘북하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능형 통합관

제센터 연계(4억)’, ‘노후 하수도시설 정비공사(8억)’ 등 군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 안전 특교세도 다수 확보했다.
장성군은 김한중 군수 등 군 관계자들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긴밀하게 소통한 결과 특교세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현안 사업 해결의 열쇠가 국비 예산 확보에 달려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신규 국·도비 발굴과 세종사무소 운영 등 예산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D-100일 장성군이 8일 김한중 장성군수와 유관기관장, 도·군의원, 체육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1층 현관 앞에서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성공기원 D-100일 카운터기 제막식을 가졌다. <장성군 제공>

담양군, 2024년생부터 月 20만원

출생기본수당 올해부터 시행... 18년간 4320만원 지원

담양군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아이와 보호자 모두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구다.
지원 금액은 담양군과 전라남도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생기본수당은 2025년부터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1인 기준 매월 20만원씩 총 18년간 4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당은 아동의 출생일 이후 1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

청할 수 있으며, 담양군은 신청 대상자에게 우편과 문자 발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기준 등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2026년부터는 변동 가능성이 있고, 매월 15일 기준 실거주 확인 등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담양군은 지난해 출생수당 신설을 위한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맺고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정책을 마련했으며, 군은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를 개정해 출생기본수당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첫 시행인 만큼 많은 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담양군 출생기본수당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담양군’ 건설과 더불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혜택 더 빵빵해진 ‘강진 반값여행’ 대박 조짐

1인 최대 10만원 1년 4회 이용... 새해 3일간 387팀 사전신청

더욱 풍성해진 강진 반값여행이 올해도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2025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사전신청을 재개했다.
올해 더욱 확대되고 특별해진 강진 반값여행은 강진을 방문하는 사전신청 관광객에게 강진 여행비용의 50%를 개인은 최대 10만원까지,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 강진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전국 최초 과격적인 반값 여행상품이다.
특히 기존에는 신청 개인당 2회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더욱 확대해 개인당 4회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해 첫날부터 무려 70통 이상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135팀이 사전신청했다. 지난 3일 기준

총387팀(일평균 129팀)이 사전신청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사전신청은 강진반값여행(gangjintour.com)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외 거주 증명서류 제출만 하면 된다. 오는 13일부터 정산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업소를 제외한 강진 관내 모든 상가 등에서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당일 또는 7일 이내 Chak(착) 어플을 통해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 남산공원 청년 푸드트럭 새해에도 달린다



청년 푸드트럭.

화순군은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에 따라 지난해 연말 연휴를 기해 운영한 화순군 청년 푸드트럭을 새해에도 연장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예초 연말 연휴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던 청년 푸드트럭이 군민들에게 호응을 받아 2월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연장 운영 기간에 닭꼬치, 튀리스, 소떡소떡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여 새해에도 남산야경을 보려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맛있는 먹거리를 더 오랜 기간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산공원 청년 푸드트럭은 2월 말까지 화순시내 마 주차장에서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후 5시-밤 10시까지 운영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함평군, 농촌지도 새 기술 보급사업 접수

이달말까지 영농지원·기술보급 2개 분야 45개 사업

함평군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5년 농촌지도 시범·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에는 총 51억 5400만원이 투입되며 ▲영농지원 분야 ▲기술보급 분야로 사업이 진행된다.
영농지원 분야에서는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장기임대)’을 포함한 12개 사업이, 기술보급 분야에서는 ‘애로박 연속 생산 종합기술 보

급’을 포함한 33개 사업이 추진된다. 총 45개 사업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사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군민과 단체로,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제출, 타당성 검토,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2월 중 열리는 농업산·학 협동심의회에서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기술 도입을 통해 지역 농가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함평군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농촌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속도전

어린이·임산부·65세이상 어르신 3월까지 무료

장흥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를 대비해 어린이와 임산부,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을 서두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절기 질환은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지

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안전한 백신임을 밝혔다.

무료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백신은 오는 3월까지 보건소,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기저질환을 악화시키고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독감·코로나19는,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올리고 손씻기·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